

Sermon 22 November 2015 The Lord's Prayer

<요한계시록 1:4b-8, 요한복음 18:33-37>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과 함께 올해의 말씀을 끝내는 날입니다. 사실 비록 지난주에 끝냈지만 말입니다.

이번 주일 성구 집에는 요한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성구 집이 모든 세계의 많은 다른 교단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마다 듣고 읽는 것들이 또한 모든 세계 믿음의 공동체에 들려지고 있다는 한가지 좋은 생각이라는 것에 유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많은 세계교회들은 그리스도 왕의 축제를 축하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소들에서 이번 주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영광 중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축하하는 대단한 축제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넘어 삶의 승리, 악을 넘어 선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now and not yet)" 하나님의 왕국-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생각하며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마 그것은 저의 장로교 DNA 일 것입니다. 그러나 "Christ the King"은 저에게는 축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다는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예수님에게 구체화된 사랑의 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큰 소리로 선언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은 삶에 절대적으로 근본적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참여 하고 그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우리주위 세상의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모든 것이며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 오신 영광의 예수님에게 우리 믿음의 눈을 드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많은 부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폭력의 강력한 힘과 증오가 확산 되어질 때 그것이 사실 세상의 마지막이 갖게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 시켜줍니다.

저의 장로교 DNA 와 연합교단 소속은 항상 저를 세상에 많은 혼잡함, 투쟁, 용기 그리고 연민과 함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별 하는 것을 시도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의 왕국 을 창조하는지에 관하여 보는 것 입니다. 남성과 여성,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 시키기 위해 항상 반응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상처 받은 자를 치유하기 위해 추구 하는 것과 죄, 화, 그리고 부끄러움의 짐들을 가진 자들을 위한 용서의 놀라운 자유, 저항과 몰인정이 있는 곳에 정의가 역사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라고 기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숨어 있는 비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생각 없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줄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집중 하는 것 보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뒤 그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이해하시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것은 소위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또한 존 도미닉 크로산(John Dominic Crossan) 의해 쓰여진 아주 좋은 책의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시작 부분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위대한 기도 입니다.

주기도문은 또한 기독교인들의 가장 이상한 기도 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독교 인들에 의해서 기도되지만 결코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교회 에서 기도되지만 결코 교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매주 일요일에 기도되지만 결코 일요일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기도문 이라고 불리지만 결코 주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기도 되지만 성경의 무오류성, 동정녀마리아의 출산, 기적들, 또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기도되지만 결코 전도나 복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오순절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도되지만 결코 성령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크로산(Crossan)은 이 서문에서 "주기도문은 결코 언급 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도되고 또한 언급한 것을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도되어진다고" 진술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그것이 급진적인 선언과 온 세상으로 선포된 언어로 모든 인간을 위한 희망의 찬송가라면?" 이라고 크로산이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즉 격식과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친밀감과 소속감이 있는 관계를 나누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기도 삶 그리고 그의 영성의 일부분이 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이른 아침 마루키도르 해변가에서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아버지"라는 두 단어를 반복해서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장소의 아름다움을 둘러보았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초대한 창조주의 존재에 거한, 무한한 경이로 가득한, 모든 창조물을 느끼도록 만든 그 차이를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 세계와의 관계로 부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자신의 소유만이 아닌 공평하게 모든 인간의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아버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땅에 있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창조주에게 속하고 다른 이들은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정말 모든 인간의 기도라면, 기도가 그들의 기도이건 아니건 그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인식하는 분열, 두려움과 무지에 의한 분열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 상기시켜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깊고 푸른 하늘 너머 어딘가에 있는 천국의 개념과 함께 성장했을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천사가 웅장한 날개와 함께 주위를 비행하는 그런 세속과는 다른 그런 곳입니다.

하늘은 자주, 예를 들어,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를 먹고 있는 장소로 풍자됩니다. 천국은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죽을 때 가는 곳, 아버지의 집,으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기 유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별개일까요?

만약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안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축하되는 곳으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왕국은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것으로 이 왕국은 여기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왕국은 전부이며 평화로운 모든 것의 우리의 열망하는 것 그리고 희망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주위를 봅니다. 이 돌아봄은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먹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집인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힘을 북돋아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해를 사용하여, 우리는 신비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생각 할 때 "거룩"은 정말 아름다운 말 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지 무심히 봄으로서 과소평가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고 신성시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존경의 관심을 표하기를 요청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신발을 벗게 됩니다.

유대인 학자 마틴버벌(Martin Buber)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 주위에 "세심한 주의"를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표면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지는 일들이 많지 않을 것이며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심하게 허비되는 것으로는 사용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신성함을 되찾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God"의 단어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와 같은 다른 은유적인 것을 추가하는 것과 같이 "God"단어는 정말 은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문자 "G"로 표기함으로 다른 많은 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야훼(Yahweh)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who I am)" 또는 "나는 스스로 있을 자니라(I will be who will be)"로 가장 잘 번역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으므로 "야훼"의 발음도 불확실합니다.

제호바(Jehovah) 는 야훼(Yahweh)의 왜곡된 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거룩한 분 앞에 정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히브리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입술로 말해지기에는 너무 거룩하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주(Lord)"로 해석 하는 "아도나이(Adonai)"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마 불행한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에는 어떠한 범주안에도 맞지 않을 특정한 성별의 타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Father)"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오히려 남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관계와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하고 기도하기에 얼마나 거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이것이 되리라 상상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하나님 왕국을 내려 둘러 보며 영과의 권좌에 앉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가장 자애롭기는 하지만 절대 통치자의 이미지들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또한 판결을 기다리고 서있는 우리 앞에 재판의 권좌의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편안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의 이해에 있어서 세속적인 면에 있어서의 개념과 분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번역은 어떤 종류의 국가보다는 하나님 영역, 하나님의 활동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 나라 그리고 이웃을 보면 정말 복잡한 난장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인간의 비용을 수반하는 돈- 너무 자주 성공의 기준으로-, 발전 그리고 성장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 가정의 상실, 또는 그저 스릴을 느끼기 위해 뭔가 중독이 될만한 것을 찾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문화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인종차별이나 두려움으로 고통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 맞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특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 장 20 절-21 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듯이 그것은 우리를 현재의 순간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고 말할 수도 없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Crossan 이 다시 말하듯이 “그러나 단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들어가고 살고 그리고 확립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제자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찾기 위해서 주의 기도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적인 삶의 부분이 되게 하시고, 그의 길을 따르는 경험의 일부가 되게 한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그 앞에 놓인 매일의 삶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그 것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힘일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합니다. 그 것은 힘든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것이 어떻게 치유와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것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내를 믿고 예수님을 본보기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히 만약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단지 우리의 노력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에 씬 없이 이미 행하시는 것에 함께 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쉽게 우리를 덮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은 처음 몇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에 모든 것이 걸려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이 더 깊은 이해로 그리스도 왕의 날을 축하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주 주의 기도와 함께 여정을 계속 할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을 천천히 인도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잠시 멈출 때 우리가 이 친숙한 말들을 되새기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